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큐티 나눔	금요일 오후 9시	Zoom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주일 예배 봉사위원

	08. 28	09. 04	09. 11
대 표 기 도	노지민 성도	정용현 집사	장래황 성도
성 경 봉 독	노지민 성도	정용현 집사	장래황 성도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8월 축복인사 -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세요.(성도 간에)
구주 예수님의 권능이 내게로!(자신에게)

1.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2. 2022년 성경 일독을 목표로 더운 날씨지만 힘내서 읽읍시다.
3. 9월 4일(주일)부터 코로나 기간에 병행했던 비대면 예배를 종료하고 대면예배만 드립니다.
4. 영상팀 사정으로 9월4일(주일)부터 설교 동영상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교우동정

한국 방문	윤미경 자매(27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조 영 재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494장 다같이
 기 도 Gebet 황희순 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예 9 : 13 - 16(구p759).....황희순 집사
 (Esther 9:13-16)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시작만큼 중요한 마무리..... 이상호 목사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노지민 성도

† 기도제목

1. 매사에 정확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브레멘의 각 대학에 입학한 한국유학생들이 한민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4.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이유

18세 영국에 살던 Augustus Toplady 목사는 휴양지로 가던 중 울창한 계곡에서 갑작스러운 광풍과 폭우를 만났습니다. 천둥이 치고 뇌성이 울리고 비가 쏟아지자 피할 곳을 찾았던 그는 틈이 갈라진 바위를 찾아 그 바위 틈새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소낙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던 그에게 불현듯 시상이 하나 떠 올랐습니다. 그것이 새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이 찬송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에 예상할 수 없는 폭풍우가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가정의 풍파, 예기치 못한 사업의 흔들림, 실패, 갑작스러운 발병,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단절과 상처, 이것이 인생의 광풍이고 폭풍우입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반석, 위로,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광풍을 만날 때 누가 우리 위로와 안식이 되어 주겠습니까? 우리 왕이신 예수, 바로 그분이 광풍과 폭우를 피할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그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 이동원목사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 당신의 하만이 무엇이든 간에 왕 앞에 서는 순간 싸움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 Tommy Tenney(미국 목사, 다윗의 장막 저자) -